뮤지컬 시카고 CHICAGO 100배 즐기기

# "관능적인 춤과 음악에 몸을 맡겨라"

극이 시작되고 여주인공 벨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심플한 검은색 세트와 강렬한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전해준다.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시카고'는 관능적인 춤과 14인조 재즈 빅밴드가 연주하는 감미롭고 화려한 재즈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시카고'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앙상블의 섹시한 옷과 몸매 '주목'
## 독특하고 매력있는 의외의 캐릭터
## 강렬한 조명도 색다른 재미 선사

▲의외의 캐릭터에 주목하라

'시카고'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여죄수인 벨마 캐리와 록시 하트다. 하지만 극 중에서 의외의 캐릭터들이 던져주는 매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언론의 횡포를 보여주는 기자 메리 선샤인 역을 맡은 T.W.KIM은 눈여겨 봐야할 캐릭터이자 배우다.

국내에서 메리 선샤인 역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배우로 꼽히는 그는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 제작진에서 따로 언더 스터디(작품에 출연 중인 배우가 사고 등의 이유로 출연을 못하게 되었을 때 대신 그 역을 맡아 하는 배우)를 뽑지 않을 정도로 신뢰감을 얻고 있는 배우다. 특히 극의 마지막 부분, 메리 선샤인을 둘러싼 반전은 관객들의 뒤통수를 친다.

무능하게만 보이는 록시 남편 아모스도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 캐릭터다. 특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는 감미로운 선율의 노래는 관객들의 감정선을 건드린다.

▲앙상블에 집중하라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주역배우들의 활약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앙상블과의 조화다.

한국판 '시카고'는 이미 지난해 공연 당시 많은 화제를 뿌리며 흥행에 성공했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앙상블 대다수가 지난해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멤버들이다. 미국 스태프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앙상블팀은 '시카고' 무대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다.

화려한 의상이 아닌, 검은색의 심플하고 섹시한 의상을 입은 여배우들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낸 남자배우들이 보여주는 절도 있고 관능적인 춤은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독특한 춤과 음악을 즐겨라

'시카고'는 1975년 초연 당시 무엇보다 밥 파시가 안무한 독특한 춤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크고 시원시원한 동작 보다는 몸의 근육을 이용한 섹시하고 관능적인 춤이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또 대머리였던 자신의 머리를 감추기 위해 이용했던 검은색 모자는 '시카고'의 춤에서 빠질 수 없는 소품이 됐다.

변호사 빌리와 록시하트가 함께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을 부르는 장면에서 록시하트가 마리오네뜨 인형처럼 움직이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3곡의 연주음악을 포함한 22곡의 뮤지컬 넘버는 관객들의 귀를 호강시킨다. 메인 테마곡인 'All that Jazz', 극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벨마와 록시가 함께 부르는 'Nowadays' 를 비롯해 박칼린 음악감독과 출연배우 남경주씨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으로 꼽은 'Class'는 가을날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멜로디가 일품이다.

▲간결한 세트, 강렬한 조명

'시카고'의 세트는 화려한 치장과 변화무쌍한 다른 작품의 세트에 비해 다소 심심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심플한 세트가 오히려 극적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

군더더기 없는 무대가 오히려 극의 집중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강렬한 조명만으로 분위기를 바꿔가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뮤지컬의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록시하트 재판 장면에서 앙상블을 비추는 조명은 인상적이다.

13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정승주·최영훈·황영성 '여행…'전

### 10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정승주 작 '스페인 어느 도시'

여행은 화가에게 소중한 경험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바라본 모든 풍경은 창작 욕구를 샘솟게 하는 자극제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서양화가인 정승주, 최영훈, 황영성씨 등 3명이 26일~10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여행을 테마로 한 '여행, 영혼을 살찌우는 여정'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풍경과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 등을 담은 유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또 현장감이 살아 있는 스케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정승주(전 전남대 예술대학장)씨는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 스페인의 소도시 등 유럽 여행을 통해 창작한 작품을 출품했다. 또 백두산, 금강산, 독도 등 우리 자연에 대한 깊은 감탄과 경의를 담아낸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인물의 표정을 섬세하게 그린 뒤 산과 구름을 화려한 색으로 표현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린 작품들이다.

최영훈(조선대 미대 교수)씨는 봄의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화려한 색의 향연을 펼쳐보여 준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1978년 일본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화폭에 담아온 여행지의 풍경을 선사한다. 아프리카의 남쪽 끝에서 아르헨티나의 빙하, 모스크바와 인도, 페루 까지의 풍경이 작가 특유의 강한 색채로 그려졌다.

황영성(조선대 명예교수)씨는 '가족 이야기' 연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던 전라도 땅끝에서 설악산,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미주 중남미의 풍경을 선보인다. 점차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따뜻하고 서정적인 화풍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던 지난 1990년 멕시코, 페루 여행의 여정을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기술 유럽 수출

### 세비야비엔날레에 전시팀 스태프 2명 파견

양상기 팀장

창설 13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축적된 기술력이 비엔날레 본고장 유럽에 수출된다.

재단은 25일 "제3회 세비야비엔날레(10월2일~2009년1월11일)의 개막 준비를 돕기 위해 전시팀 스태프 2명을 스페인 세비야비엔날레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의 작품 설치 작업을 총괄했던 양상기 전시지원팀장과 영상작품 담당 엘비스김이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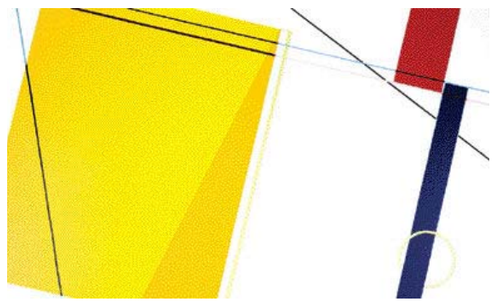
세비야 측은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작품 설치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작업을 마무리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이들의 지원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세비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 크기가 4m가 넘는 등 대작이 많아 숙련된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양 팀장 등은 오는 28일 출국해 한국 작가 11명의 작품 설치를 전담하게 되며, 개막식이 열리는 3일 귀국하게 된다. 이들의 항공료, 체류비 등의 경비는 세비야 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양 팀장은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자리 잡으면서 후발 비엔날레에 기술력을 전수해 주는 등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노영선의 한글이야기'전 ▶ 10월14일까지 일곡 갤러리



'믿음'

일곡갤러리는 오는 10월14일까지 한글을 이미지화 시킨 노영선씨의 작품을 모은 '노영선의 한글이야기'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노씨는 한글을 모티프로 자·모음을 자유롭게 변형한 기하학적인 도형 위에 음양오행의 오방색을 칠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주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인 '믿음, 소망, 사랑, 우정'의 네 낱말 속의 자·모음을 변형한 작품들이다. 한글날(10월9일)을 앞두고 외래어와 인터넷 언어를 즐겨쓰는 젊은 층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 | |
|---|---|
| M관 | 헬보이2-골든아미(12세)최고급관 |
| 2관 | 트럭(18세)/멋진하루(12세) |
| 3관 | 맘마미아 (12세) |
| 4관 | 인블룸(18세) |
| 5관 | 신기전 (15세) |
| 6관 | 울학교 이티(15세)/미러(18세) |
| 7관 | 트럭 (18세) |
| 8관 | 20세기소년(12세)/황시(12세)/외톨이(15세) |
| 9관 | 영화는 영화다 (18세) |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 |
|---|---|
| 1관 | 신기전 (15세) |
| 2관 | 미러 (18세) |
| 3관 | 울학교 이티(15세) |
| 4관 | 방콕 데인저러스(15세)/외톨이(15세) |
| 5관 | 헬보이2(골든아미)(12세) |
| 6관 | 영화는 영화다(18세) |
| 7관 | 스타워즈(전체)/맘마미아(12세) |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목·금·토·일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 | |
|---|---|
| 1관 | 트럭 (18세) |
| 2관 | 방콕데인저러스(15세)/영화는영화다(18세) |
| 3관 |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 4관 |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 5관 | 울학교 이티(15세)/황시 (12세) |
| 6관 | 맘마미아 (12세) |
| 7관 | 신기전 (15세)/외톨이 (15세) |
| 8관 | 맘마미아 (12세)/미러 (18세) |
| 9관 | 멋진하루 (12세) |
| 10관 | 신기전 (15세) |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107평) 잘된리 상영중
1588-7941 상단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 |
|---|---|
| 1관 | 맘마미아 (12세) |
| 2관 | 신기전 (15세) |
| 3관 | 트럭 (18세) |
| 4관 | 영화는 영화다 (18세) |
| 5관 | 미러 (18세)/외톨이 (15세) |
| 6관 | 멋진하루 (12세) |
| 7관 |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시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0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 | |
|---|---|
| 1관 | 지구(전체)/방콕 데인저러스 (15세) |
| 2관 | 울학교 이티 (15세) |
| 3관 | 황시 (12세)/미러 (18세) |
| 4관 | 영화는 영화다 (18세) |
| 5관 | 멋진하루 (12세) |
| 6관 | 트럭 (18세) |
| 7관 |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 8관 | 맘마미아 (12세) |
| 9관 | 신기전 (15세) |
| 10관 | 신기전 (15세) |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사랑문 가족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 |
|---|---|
| 1관 |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 2관 | 신기전 (15세) |
| 3관 | 멋진하루 (12세) |
| 4관 | 영화는 영화다 (18세) |
| 5관 | 맘마미아 (12세) |
| 6관 | 울학교 이티 (15세)/미러 (18세)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